한민수 대변인 “명심 추미애에 있었다면 이런 결과 나왔겠느냐”강성 친명 정청래 “당원이 주인인 정당 아직 멀다”며 엇갈린 주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만나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 경선 결과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 수습에 나섰다.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뒤집은 결과에 대해 친명(친이재명)계는 처음부터 명심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의장 후보에 선출된 우원식 의원도 “명심 경쟁은 언론의 부풀리기”라고 주장했다.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17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에서 “정말로 명심이 추미애 당선인에 있었다면 이런 결과(우원식 의원 선출)가 나왔겠느냐”면서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명심은 우원식 의원에게도 있었다”면서 “한민수에게도 명심이 있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명심이 뒤집혔다는 평가가 나오자 친명계가 이재명 대표의 위상을 보호하기 위해 ‘명심이 없었다’는 주장을 편 셈이다.한 대변인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일으킨 의장 후보 ‘교통정리’ 논란에 대해서도 “무슨 교통정리를 하겠느냐”면서 “그런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박찬대 의원이 (의장)후보들을 개인적으로 만났을 수는 있을 것”이라며 “여러 가지 사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 대변인은 의장 후보 경선 결과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세론이 흔들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어디서 그런 평가를 하느냐”면서 “(전당대회는) 그것(의장 경선)하고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세론과 관련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한 사람을 황제로 모시는 당 같다”고 비판한데 대해서도 한 대변인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가 77~78% 득표를 했는데 그런 표현이 맞나 모르겠다”고 말했다.민주당에선 우원식 의원도 명심 논란을 해명하는 데 집중했다. 우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제가 있는데 어떻게 교통정리가 되겠느냐”면서 “명심 경쟁이라는 이야기는 언론의 부풀리기”라고 말했다.그러나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은 명심이 뒤집힌 이번 경선 결과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당원 게시판에는 ‘우원식은 사퇴하라. 당선인들은 사죄하라’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강성 친명계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당원이 주인인 정당,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글을 올리며 직접적으로 불만을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이렇게 주장하면서 “상처받은 당원과 지지자들께 미안하다”면서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정권교체의 길로 가자”고 주장했다.정 최고위원의 이런 주장에 대해 우 의원은 “아주 부적적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당선자들의 판단과 당원들을 분리시키고 그걸 갈라치기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